

보도해명자료

(’18. 1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2주도 안돼... 예측 빗나간 8차 전력수급계획”
(’18.1.15.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- ‘탈원전’ 뒷받침 위해 겨울 최대 전력수요전망을 8만5200MW로 줄였지만 지난주 이틀 연속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된지 2주 만에 예측이 빗나감
- 산업부가 전력예비율이 10%를 넘는데도 ‘전망 오류’ 비난 피하려 급전지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음
- 급전지시가 늘면 비용규모가 불어날 가능성이 높고, 발전소를 덜 짓는 것보다 경제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❶ 탈원전을 위해 최대전력 수요전망을 줄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은 7차 계획과 동일한 모델을 바탕으로 권위있는 전문기관의 GDP, 인구, 기온전망 등을 통해 예측되었고,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은 수요전망과 무관함
 - 금년 겨울 최대전력수요 전망도 기상청의 평년기온(1981~2010년) 수준을 전제로 예측되었기 때문에, 탈원전 때문에 수요를 낮춰 전망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

❷ 금번 동계 전력수요 전망이 오류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음

- 금번 수요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*로 인한 것임

* (평년 1월 기온) -4.3℃ VS (1.12일 전국평균) -12.7℃

- 다만, 금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예비율 내 미래 불확실대응 예비율(9%)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계획 전체적으로 볼 때, 전망오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- 특히,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

❸ 전망 오류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DR 사용을 남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
- DR 발령요건*은 '16년 개정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되어 있고, DR 발령요건이 충족되면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것임

* ① 전력수급 위기경보 준비·관심단계 해당 또는 예상시
② 전력수요 예측값이 직전 같은 수급대책기간의 최대전력을 경신 또는 예상시,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당해연도 목표수요를 초과 또는 예상시
③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수요감축이 필요한 경우

- 따라서 탈원전 또는 정부의 전망오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치 자의적으로 남발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
- 다만, 그간의 DR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음

④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피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임

○ 현행 4.3GW 규모의 DR과 동일 규모의 LNG 발전소 운영 비교시

- 4.3GW 규모의 DR과 발전기를 유지하기 위한 용량요금만 따져도
DR이 연간 약 1,600억원* 절감될

* DR의 경우 야간 및 주말시간이 제외되어 일반 발전기의 54% 수준

* 4.3GW 기준 용량요금

- 발전기 3,454억원 = 용량요금 단가×24시간×365일

- DR 1,860억원 = 용량요금 단가×하루 10시간×평일(주말, 연휴 제외)

- 4.3GW의 LNG를 신규로 건설할 경우 약 4조원 이상이 소요되나,
DR은 기존의 제조설비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DR의 경제성이
인정되며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에서는 DR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음

○ 정부는 발전소 건설을 통한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관리에서 DR 등
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임

⑤ 해당 기사에 사용중인 ‘급전지시’ 용어는 ‘수요감축 요청’으로 이미 변경되었음. 따라서 급전지시는 올바른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(044-203-5240)

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(044-203-5260)